

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주요 녹지지대를 산책로·교통로로 만든다	밴쿠버
사회·복지	3	16구에 짓는 SOS 노숙인 센터 11월 개장	파리
	5	건강·웰빙 등 5개 우선순위 담은 노령화 전략 추진	뉴사우스웨일즈
환경·안전	7	‘내 마당에 나무 1~5그루 심기’ 사업 착수	파리
	8	재해 시 장애인 장애유형별 지원 매뉴얼 제작	기타큐슈
도시계획·주택	10	‘시민소통 공간으로’ 버스정류장 만들기 시범사업	싱가포르
	12	‘저소득층 주택난 해결’ 조립식 주택 공급	밴쿠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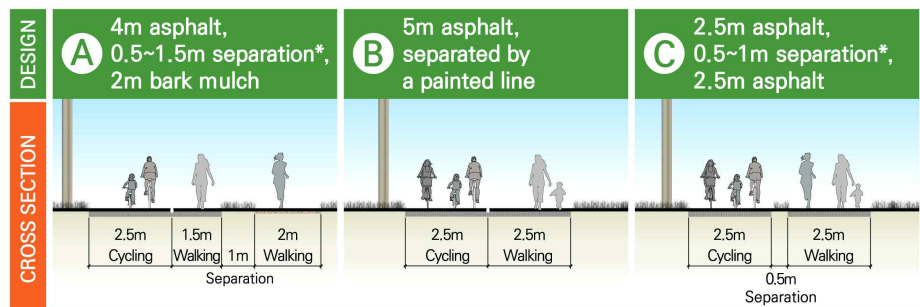


주요 녹지지대를 산책로·교통로로 만든다

아뷰투스 그린웨이 회랑…보행·자전거로 도시 가로질러 통행 가능

캐나다 밴쿠버시 / 도시교통

- 캐나다 밴쿠버시는 시의 중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아뷰투스 그린웨이(Arbutus Greenway)의 회랑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공원이나 자연보호 지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와 시의 남북을 연결해주는 교통로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
- 배경
 - 아뷰투스 그린웨이는 시의 주요 녹지지대로, 기차길을 따라 자리 잡은 회랑 주변에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, 주택가, 상가, 녹지 등이 자리 잡음.
 - 모든 구간이 도로와 접해 있어 보행이나 자전거로 가로질러 통행이 가능
- 주요 내용
 - 밴쿠버시는 회랑을 공공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14년 토지를 매입
 - 시는 산책로를 조성하기 전에 구간별로 주변지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
 -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산책로가 날씨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되기를 희망



구간별 산책로 디자인 구성 계획

- 시는 회랑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, 접근성 향상 및 여러 장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계획을 수립
 - 시는 2016년 말까지 교차로를 개선하고 다른 길과 연결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
- 향후 계획
- 시는 산책로를 조성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
 - 이용자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위해 필요할 때 산책로를 보완할 예정
 - 2017년 봄까지 구간별로 추가적인 녹지 구성, 벤치, 공공미술(Public Art), 화장실, 스트리트 퍼니처(Street Furniture) 등을 설치할 예정

<http://vancouver.ca/files/cov/arbutus-greenway-temporary-path-oct-2016-open-house-information-displays.pdf>

<http://vancouver.ca/news-calendar/city-reports-out-on-arbutus-greenway-temporary-path-consultation-and-design.aspx>

사회·복지

16구에 짓는 SOS 노숙인 센터 11월 개장

프랑스 파리市 / 사회·복지

- 프랑스 파리市는 노숙인이나 노숙인 가족을 각종 위험에서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 재편입을 돕기 위해 16구에 건립 중인 SOS 노숙인 센터를 2016년 11월 개장할 예정
- 배경
 - 파리시에는 노숙인 지원단체인 긴급거주센터(CHU)와 사회편입거주센터(CHRS)가 있으며, 이 단체들은 산하 센터를 이용해 노숙인을 지원
 - CHU는 노숙자나 노숙자 가족을 위한 임시 숙소를 제공
 - CHRS는 노숙인의 사회 재편입을 위해 숙소를 제공
 - 노숙인은 구청의 사회복지팀과 상담 후 노숙인 센터에 입주가 가능
 - 노숙인 센터의 입주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기간연장이 가능하며, 시는 노숙인이 센터에 입주해 있는 동안 집을 찾는 것을 적극 지원



완공을 앞둔 SOS 노숙인 센터

- SOS 노숙인 센터의 개요
 - 노숙인들이 자연환경과 동떨어지지 않고 접촉할 수 있도록 프랑스에서도 아름다운 숲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불로뉴 숲 옆에 센터를 건축

- 자연 친화적이고 재생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 자재도 주로 나무를 사용
- 센터는 긴급거주센터의 주도로 건립 중이며, 건립비용은 파리시가 80%, 중앙 정부가 20%를 지원
- 센터는 총 5동의 건물로 구성되며, 이 중 가족단위 노숙인과 개인 노숙인을 위한 건물이 2동씩이고 나머지 한 건물은 식당과 사무실로 사용

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un-nouveau-centre-d-hebergement-d-urgence-pour-sans-abris-dans-le-16e-arrondissement-3943>

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se-loger-dans-l-urgence-a-paris-les-centres-d-hebergement-3453>

건강·웰빙 등 5개 우선순위 담은 노령화 전략 추진

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/ 사회·복지

- 호주 뉴사우스웨일스(NSW)주는 노인들이 장수의 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,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갱신한 ‘노령화 전략 2016~2020(NSW Ageing Strategy 2016~2020)’을 발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‘건강과 웰빙’ 등 5가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
- 배경
 - NSW주는 2031년에 전체 인구의 20%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, 50세 이상도 1/3이 될 것으로 추정
 -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기회 요인과 노인들의 욕구에 맞춘 정책이 필요
 - 노인들의 유급 노동, 무급 자원봉사 등 경제·사회의 기여도 증가
 - 돌보미 등의 직업군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
 - 소비자로서 노인들의 영향력 증대
 - 노인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 개척에 기여
 - 주는 2012년에 ‘노령화 전략(NSW Ageing Strategy)’을 수립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
 - 주정부는 지난 4년간 경험을 통해 얻은 근거에 기반을 두고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갱신을 결정
- 5가지 영역 및 대응방안
 - 건강과 웰빙
 - 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서비스와 기반시설의 재점검
 -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 및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접근성 향상
 - 일과 은퇴
 - 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지속적 시행 및 고용주들과의 협력 강화
 - 비공식 노인 돌보미들을 고려한 유연한 고용 형태 촉진
 - 미숙련·육체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 진행

- 주거
 - 주정부의 도시개발 권한 및 규제력을 활용한 노인 주거안정성 제고
 - 민간 영역과 협력하여 노인을 위한 주택 설계 및 공급 촉진
 - 저임금 및 홈 리스 가능성이 높은 노인집단의 발굴 및 표적 지원
- 이동 및 교통
 -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인들을 위한 교통수단 개발 및 확충
 - 이동성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교통수단 공급 확대
- 포괄적 공동체(Inclusive Communities)
 -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이 지역사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
 - 젊은이들이 노인과 노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개발
 - 소수자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
- 향후 계획
 - 실행계획은 주정부, 지방자치단체, 비영리 섹터 및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
 - ‘노령화 전략’은 세부 실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이며,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

<https://www.nsw.gov.au/news/longer-and-better-lives-nsw>

http://www.facs.nsw.gov.au/__data/assets/pdf_file/0005/382829/3913_ADHC_NSW-AgeingStrategy_WEB.PDF

환경·안전

‘내 마당에 나무 1~5그루 심기’ 사업 착수

프랑스 파리市 / 환경·안전

- 프랑스 파리市는 도시 내 자연 친화적인 녹색공간을 확충하고, 시가 직접 식수할 수 없는 사유지에 나무를 심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제공하는 ‘내 마당에 나무 심기’ 사업을 시행한다고 2016년 10월 발표
- 주요 내용
 - 신청자격
 - 자기 집이나 건물 소유자
 -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대표
 - 세입자는 주인의 허락하에 신청이 가능
 - 신청방법
 -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 - 나무를 심을 공간 주변에 지하 건축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작성
 - 서약서의 주요 내용
 - 시로부터 나무를 받은 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관리
 - 나무를 잘 기르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
 - 나무가 죽으면 시로부터 나무를 새로 받아 식수
 - 식수 절차
 - 시 공무원이 방문해 나무를 심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허가함.
 - 시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공간의 크기에 따라 1~5그루의 나무를 제공
 - 나무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계절이 오면 시에서 직접 나무를 배달해 심어줌.

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la-mairie-de-paris-vous-offre-des-arbres-4102>

재해 시 장애인 장애유형별 지원 매뉴얼 제작

일본 기타큐슈市 / 환경·안전

- 일본 기타큐슈市는 재해 등 긴급상황 때 대피소에서 장애인 도우미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주요 특징과 배려 방법, 대피소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과 지원 방법 등을 수록한 ‘재해 시 장애인 지원 매뉴얼(災害時障害者サポートマニュアル)’을 2016년 3월 제작
- 장애유형별 지원방법
 - 시각장애인
 - 음성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
 - 최대한 큰 글자나 다양한 색으로 정보 전달 및 안내
 - 체육관 등 대피소가 넓으면 화장실로 이동하기 쉬운 장소를 제공
 - 청각장애인
 - 몸짓이나 손짓, 필담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전달
 - 입 모양을 보고 지원자의 의사 파악이 가능하므로 입과 표정을 크게 하여 의사를 전달
 - 언어장애인
 - 천천히, 짧고 알기 쉬운 말을 사용
 - 말을 하면서 동시에 표정이나 몸짓, 손짓을 함께 사용
 - 지체장애인
 - 장애유형이 같아도 저마다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가능하며 불가능한지를 본인에게 먼저 확인
 - 대피소는 배리어 프리로 하고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각종 편의기구를 확보
 - 지적장애인
 - 움직임이 많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경향이 있는 지적장애인에게는 그 행동에 맞춘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
 - 대피소 구축 시 지적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나 단체의 생활공간을 확보

- 발달장애인
 - 공지사항은 개별적으로 천천히 전달
 - 부정적인 말은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이거나 권유형의 말을 사용
 - 자신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파티션이나 깔개 등을 활용
 - 커다란 소리나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고 최대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.

- 정신장애인
 -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사표현을 못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 필요
 - 정신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

- 장애인 도우미의 스트레스 대처법
 - 스트레스의 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
 -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것
 -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료와 협력하고 대화하며 활동하는 것이 중요
 - 가끔 현장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안정을 취할 것
 - 쉴 때는 충분히 쉴 것

<http://www.city.kitakyushu.lg.jp/ho-huku/17600304.html>

<http://www.city.kitakyushu.lg.jp/files/000735302.pdf>

도시계획·주택

‘시민소통 공간으로’ 버스정류장 만들기 시범사업

싱가포르 싱가포르시 / 도시계획·주택

-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은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‘DP Architects’ 건축디자인사무소가 제안한 ‘버스정류장 프로젝트(Project Bus Stop)’를 일부 정류장에 시범 적용하여 2016년 8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
 - DP Architects는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 만든 건축디자인사무소로,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공공장소를 시민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‘사각지대 디자인 프로젝트(Project Blind Spot)’를 기획
 - ‘버스정류장 프로젝트’는 ‘사각지대 디자인 프로젝트’의 일부
- 주요 내용
 - 버스정류장의 지붕 녹화 및 벽의 뒷면에 덩굴식물 식재
 - 버스정류장의 가운데에는 작은 나무를 심은 화분을 매립하고 지붕의 빗물이 화분으로 흘러들어 가게 함.
 - 의자 중 일부는 그네 형태로 디자인
 - 책과 잡지 등을 비치
 - 무료 와이파이 제공 및 무료 휴대전화 충전기 설치
 - 3개의 스마트 보드(Smart Boards)를 벽면에 설치
 - 버스 도착시간, 주변 지도, 뉴스, 지역행사 등의 정보 제공
 -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자료 열람
 - 길 찾거나 공기 오염 확인 등
 - 노인들이 앉았다가 잡고 일어설 수 있는 팔걸이를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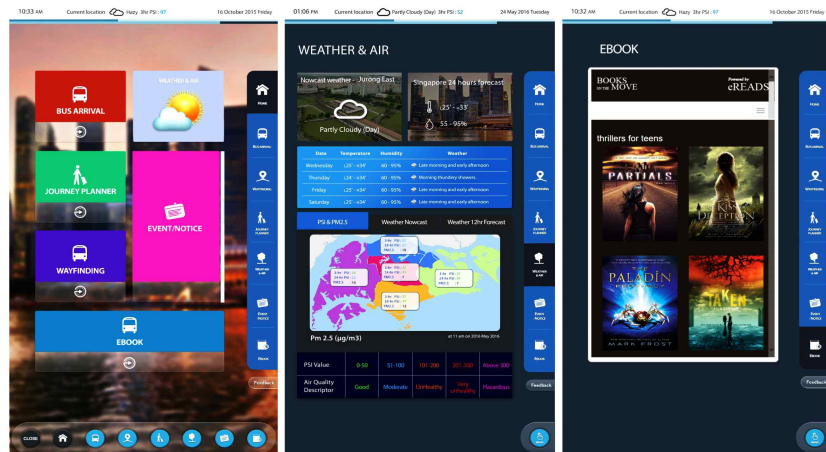


시범 조성된 버스정류장

- 밤에도 글씨가 잘 보이도록 스크린 내부에 전등 설치
-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 확보
- 자전거 보관소 설치

- 기타사항

- DP Architects는 다양한 콘텐츠를 버스정류장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해 정보통신국, 토지교통국, 공원관리청, 도시재개발국 등의 정부기관과 파트너십 구축
- 시범정류장 디자인은 최근 산업, 주거,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주룽레이크 구역(Jurong Lake District)에 적용, 설치되었으며 1년간 운용 예정
- 도시재개발국은 시범 운용기간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예정



스마트 보드(Smart Boards)의 화면

<https://www.ura.gov.sg/uol/media-room/news/2016/aug/pr16-53>

<https://www.ura.gov.sg/uol/-/media/User%20Defined/URA%20Online/media-room/2016/aug/pr16-53a.pdf?la=en>

https://www.aude.sg/features_Project_Bus_Stop.html

‘저소득층 주택난 해결’ 조립식 주택 공급

캐나다 밴쿠버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캐나다 밴쿠버市는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활용 가능한 소규모 택지에 조립식 주택을 지어 임시 거주지로 사용한 후 부지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는 ‘조립식 주택 건설 계획(Modular Housing Initiative)’을 2016년 5월 수립
- 주요 내용
 - 시는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조립식 주택을 건설하여 영구적인 주거지로 옮기기 전에 거주할 수 있는 파일럿(pilot) 건축 프로그램을 시행
 - 시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한 조립식 주택도 건설할 예정
 - 대규모 조립식 주택단지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.
 - 조립식 주택 건설은 지역 내 인력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 사용과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을 추구
 - 이 프로그램은 2017년 1/4분기까지 진행할 예정
- 향후 계획
 - 파일럿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임시 거처의 개념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지만 향후 가족용 주택, 쉼터, 노인주택 등으로 활용할 예정
 - 장기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건설비용은 연방정부, 민간자본, 토지 소유자, 지방정부 펀딩 등을 활용할 예정

<http://council.vancouver.ca/20160517/documents/rr2presentation.pdf>